

第109回(臨時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 3月 15日(木) 午前 11時03分 開式

## 第109回鐘路區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默念
1. 開會辭
1. 閉 式

(11時03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第109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民儀禮가 있습니다. 壇上의 國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着席)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습니다.

○議長 金以煥 존경하고 친애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지난 겨울은 수 십 년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잦은 폭설로 가뜰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많

은 고통과 불편으로 어느 때 보다도 유난히 춥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 겨울도 물러가고 절기상 동물이 깨어나고 만물이 소생한다는 경칩도 지나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속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새봄의 길목에서 모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우리 종로구민의 민의(民意)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109회 임시회 개최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2주년 삼일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그 날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각 언론매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던 "3·1만세의 날 종로거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주관한 관계자와 행사를 집행한 구청의 모든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과거 일제의 침략행위와 온갖 만행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 검정을 승인할 움직임이 있어 피해 당사자인 우리로서는 우려와 주시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 착오적인 일본의 역사왜곡행위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주어 평화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과거 일본제국주의와 같은 망령이 부활될 수가 있고 두 나라 선린우호 관계를 해(害)칠 수 있기에 과거사 왜곡을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달 4일 새벽 홍제동 화재현장에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인명구조 도중 순직한 6명의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는 심심(深心)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로 중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에서는 유가족을 위로하고 전 의원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은 국력신장(國力伸張)과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이며 내년에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등이 있어 앞으로 많은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들은 “종로의 문화”를 보면 “서울의 문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600년 고도(古都)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여 역사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우리 종로를 반드시 찾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국인관광객에게 우리는 친절하고 질서의식이 높고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한 번 찾고 싶은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나 지금의 우리 종로는 불법과 무질서로 원칙과 기준이 붕괴되어 가고 있어 외국인들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낮부터 대로변에는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어 거리환경과 보행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면도로나 거리 뒷골목은 불법주차와 상점 적치물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마구 버린 쓰레기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인사동 전통문화의 거리는 무질서한 차량통행과 노점잡상인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법천지로 난립·방치된 불법 및 혐오스러운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沮害)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력은 향상되었으나 이에 못미치는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등은 불법과 무질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소수(小數)의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지키고 있는 선량한 다수(多數)의 보호와 원칙과 기준이 지배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과거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불결했던 중국사람들이 많이 사는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된 이유는 엄한 범칙금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편의(便益)보다도 몇 배 심한 고통을 주는 범칙금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과 질서확립을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계인에게 금년의 한국방문의 해, 내년의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에 “아름답고 품위있는 종로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준비의 중요성 강조와 날로 더해 가는 집단행동과 이기주의가 난무하는 요즘의 세태(世態)를 우려하는 의미였음을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서로 협조하고 때로는 감시와 비판을 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들은 주로 주민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써 안전 하나 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과 같은 해빙기는 우리 생활 주변의 크고 작은 각종 안전사고들이 우려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은 극심한 한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형공사장, 절개지 낙석, 축대 및 옹벽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

내 재래시장, 대형상가, 공동주택 등 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해빙기 가스안전 관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의원 한 분 한 분이 19만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권익을 위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는 활기찬 참여의 마당(場)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끝으로 제 109회 임시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第109回 鐘路區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19分 閉式)

○ 出席議員數 19人

○ 出席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撤昇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保 健 所 長 李星世

